

함께 혁신, 함께 성공, 새로운 전북 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문의 : 산업경제연구부 조원지 연구위원
(063-280-7194)
- 담당자: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41)

보도시점 : 2022년 09월 01일(목)부터

농촌 경제·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으로 사회적농업의 지원체계 변화시켜야

-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이슈브리핑(268호) 「국가단위 사회적 농업 지원체계의 필요성 및 과제」를 통해 ‘사회적 농장 육성 및 지원체계’를 제안했다.
- 지난 6월 전라북도가 ‘농촌 경제·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’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사회적 농업을 통한 농촌의 취약계층(노인, 아동, 장애인 등)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.
 - * 사회적 농업은 농업인이 취약계층과 영농활동을 함께 하며 취약계층에게 돌봄·고용·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 - *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은 개별 농장 15개소, 거점농장 1개소가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선도지역에 속한다.

-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연구위원은 지난 5년간 사회적 농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, 체계적인 사회적 농장 육성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.
- 선도국가인 네덜란드는 사회적농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‘국립 농업 및 돌봄 지원센터’를 설립하였으며, 센터의 농장주 교육, 운영 지원,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통해 사회적농업이 제도적으로 성장한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.
-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‘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’에 선정된 농업인과 공동체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과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농업이 발달해 왔다고 한다.
- 조원지 연구위원은 전북도에 설립되게 될 ‘농촌 경제·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’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농장주의 전문적인 교육과 농장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.
- * ‘농촌 경제·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’는 농촌의 부족한 사회·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공동체를 육성하는 기관임
- ‘농촌 경제·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’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농업 이해 교육, 사회적 농장 육성, 전문인력 양성, 홍보,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조원지 연구위원은 말한다.
-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 동안만 사회적 농장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5년 후 사회적 농장의 경제적 불안정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.

- 조원지 연구위원은 “사회적 농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마련된 후 지원센터의 수요자가 거주지 인근에 있는 적합한 농장에서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농장과 취약계층을 매칭 시켜주는 서비스 플랫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이 과정에서 ‘지원센터’는 사회적 농장에 대한 관리·점검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갖춘 사회적 농장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” 라고 강조했다.